

주요개념: 성폭력, 태도 유형

성폭력에 대한 태도 유형

남순열* · 유은광** · 박경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과학은 인간을 총체적이고 의미 함축적인 존재로 보며, 이런 통합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인간은 생물학적 사회적 사회 기능적 감성과 특성을 지닌 그리고 건강에 초점을 둔 사회 심리적 존재로 파악되고 있다(Kim, 1983). 한편 여성 건강에 관한 관심도 질병중심의 여성 건강문제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적 요소와 관련된 건강문제 즉 강간, 근친 강간, 성희롱, 가정내 폭력, 비만, 운동기회의 상실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박영숙, 1995). 특히 성폭력은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며 발생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여성 건강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의 10%가 상해, 12%가 임신, 1.3%가 성병 감염등 신체적인 피해를, 남편에게 이혼 당하거나 직장에서 사표를 쓰게 되는 개인의 사회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으로 불안, 우울, 좌절감, 약물 복용에 시달리게 된다. 더구나 순결상실감에 의한 자기 비하,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 적개심, 증오 등의 정신적 피해 및 감정은 오랫동안

동안 지속되어 개인의 삶이 피폐화는 물론, 결혼 생활에 의 부적응, 가족간의 관계손상, 살인까지 일어나는 사회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성폭력 상담소, 1992).

특히 한국문화는 외모와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 중심문화이다. 유교나 민속에 있어서의 성의 의미는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신비의 능력 즉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한국의 여인들은 목숨보다 정절을 중시해 성을 잃는 것을 목숨을 잃는 것과 동일시하였다(김명자, 1985). 그리고 성폭력은 성충동이나 호기심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유인, 유혹, 협박, 잘못된 의사소통 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분석되었다(남순열, 1998).

따라서 우리사회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명확하게 함은 성폭력을 이해하고 나아가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 안에서의 인간은 특수한 적합성의 구조를 가지므로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하고서는 인간의 본질과 사회현상을 제대로 연구할 수 없다(김홍규, 1997).

성폭력과 관련된 주관적 속성을 연구한 문헌은, 강간에 대한 태도조사(김광일, 남정현, 1990) 와 성희롱에 대한 여대생의 태도 유형(신혜숙, 1996)이 있으나, 성폭

* 경인여대 시간강사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 동남간호대 교수

력의 범주 가운데 일부인 성희롱에만 국한되었고, 강간에 대한 개념도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과 진술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었다는 것은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의 총체를 얻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진술문 추출과정에서 피해자를 포함시키고 범위도 성희롱이나 강간뿐 아니라 성폭력 전반으로 확대하여 연구함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유형을 발견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성폭력에 대한 주관성의 요인을 발견한다.
- 2) 발견된 요인들의 특성을 기술함으로써 성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의 문제점을 이해한다.

Ⅱ. 문헌 고찰

1. 한국사회에서의 성문화

한 개인의 의식은 그가 사는 주위의 생활환경과 삶의 세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행위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폭력이 사회문화적 요인과 밀접함을 감안할 때 우리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여성의 위치와 인식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성은 1980년 후반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금기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런 경향은 한국에서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인 유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한국여성의 성과 성에 대한 태도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이은선, 1994).

유교는 남자(양)와 여자(음) 사이의 양성 사이에 명백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었다. 여자의 가정내 영역과 남자의 바깥 영역을 분리했으며 여자에게 열등한 위치를 부여하고 여자는 그녀의 뒷사람에게 복종해야 했다. 즉 미혼일 때는 아버지의 명령을, 결혼했을 때는 남편의 명령을, 남편과 사별했을 때는 아들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이것은 내적 영역을 바깥영역에 종속시킨 것이었다.

이런 구분은 가구 내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거처가 구분되고 공식적 혼인관계에서 성은 명시적으로 생식을 위한 것이었다. 여성은 자신의 성적 쾌락을 주장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되었고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달리 적용되었다. 남자들은 공식적 부분에서의 성과 비공식적 부분에서의 성을 모두 가질 수 있었다. 유교 중심 사회에서는 본처와 여러 명의 첩을 둘 수 있었고 기생들과 성적 쾌락을 추구할 수 있었다(심영희, 1998). 또한 가정 문화 속에서도 이중규범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남자의 성기는 자랑스럽고 부러운 것으로, 여자의 성기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주입되었다. 성장한 후에도 아들과 딸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여자의 활동 반경은 좁아진다. 여성이 혼인 후에도 병원에서 태아 감별행위와 딸을 낳으면 시댁의 눈치를 보는 남아선호 사상이 현대여성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도 여성을 지위가 낮은 존재로 내면화한 결과이다(김진명, 1993). 이러한 성의 이중규범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흡수되어 나름대로의 성인식을 가지게 된다.

한편, 유교는 여성의 미덕중 가장 큰 미덕으로 정절 즉 아내가 남편에게 헌신하는 것을 강조하고, 한혈족 집단에게 헌신 할 것을 강조했다. 양반가의 젊은 과부는 일생동안 재혼해서는 안되었고, 정부는 열녀문을 세움으로써 여자와 가족을 칭송했다. 양반여성이 남성 가해자와 맞닥뜨렸을 때 그녀는 품에 지니고 있는 은장도로 기꺼이 자살을 해야 했다. 여기에서 이 시기의 정절의 개념은 주로 처녀성 또는 신체적 정절의 개념을 말한다. 유교는 여성에게 정숙한 아내, 순종적인 며느리, 정절을 지키는 과부의 역할을 요구했다(한국여성 연구회, 1993).

유교에서는 주체로서의 여성은 없었다. 성을 포함해 인간의 욕구들은 양성 사이의 위계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제어되어야 했다. 따라서 여성의 공식적인 성은 생식을 위한 성에 국한되었고, 정절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몸을 구속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빈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신고율은 2.2%로서(심영희, 1990)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피해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원치 않기 때문,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자기는 정절을 잃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반응 등으로 이는 한국에서의 정절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강한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사회는 현재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로 인해 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아직도 성에 대한 유교적 인식과 태도는 한국사회에 남아 있다. 이런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폭력은 은폐되고 조장되어 날로 증가하고 있다.

2. 선행 연구

성폭력과 관련된 연구에서 과거에는 주로 정신 병리학 적 접근을 통해 개별적 문제로 설명하려 했으나 최근에는 사회 문화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즉 Koss, Leonard, Beezely 와 Oros(1985)는, 성폭력 가해 남성과 일반 남성과의 차이는 정신병리학적 요인이 아닌 강간을 지지하는 태도임을 보여주었고, 여성에 대해 전통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남성일수록 그들이 여성에게 행사한 강도 높은 폭력이 수용되기를 더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ully, 1990). 또한 남성에게는 성행위를 능동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성적 과시가 강조되고 여성에게는 성행위에 대한 수동적 자세와 순결과 정절을 지키고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한다는 성사회와 과정과 이중적 성윤리는 강제적 성 관계를 관습적 합법적으로 존재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ussell, 1975).

강간 발생빈도와 사회 문화적 특성들을 비교 연구한 연구에서, 강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공격이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풍도를 갖는 경향이 있었고 강간이 드물거나 없는 사회의 특성은 여성의 재생산 능력이 존중되고 양성이 보완적 관계이며 개인간의 폭력적 행동들이 최소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anday, 1981).

이밖에도 가족의 상호관계가 사회경제적 상태보다 성폭력 발생의 주요 변수임을(Finkehor, et al., 1990 ; Finkelhor & Baron, 1986; Roda, 1992) 보여주었고, Baron과 Straus(1987)는 강간에 대한 거시적 이론 4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성 불평등성 이론으로 강간이 특정 사회에서의 사회 통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성다움의 표현을 지배성, 공격성에 두는 규범이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을 지배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둘째, 포르노그래피가 강간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성차별주의와 남성지배성이 포르노그래피에 묘사되어 있으며, 포르노그래피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며, 여성에 대한 신체적 공격 행동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셋째, 문화적 요인들로 인해 간접적으로 강간

이 정당하게 지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혼란 현상에 의해 지역사회의 통합이 붕괴되고 사회적 규범이 약화되어 범죄와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으로 이들 네 가지 이론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성폭력과 관련된 국내의 문헌은 여성의 피해 경험을 강조하는 여성학적 시각의 강간에 대한 연구들(김선영, 1989; 이명선, 1989)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뒤이어 장필화 등(1994), 신성자(1993), 이성은(1996)의 성희롱에 대한 연구, 어린이 피해자(박순주, 1995; 안애선, 1997; 이미경, 1997)에 관한 연구와 친족 성폭력에 대한 연구(이원숙, 1996; 현혜순, 1997)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연구(노주희, 1997; 박현이, 1996)가 있다. 이들은 모두 성폭력이란 남성 중심적 불평등 사회 구조에 기초해 발생하며 일상생활의 불평등한 남녀관계가 더 강화된 것으로 성에 대한 보수적 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은주(1996)는, 비교적 성역할이 덜 내면화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특히 여대생들은 여성성을 내면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어, 여성성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연구 방법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개개인마다 다른 독특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행위자의 관점으로부터 인간의 주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Q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인 성폭력에 대한 주관적 태도유형을 발견하고 인식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1. Q 모집단 구성

Q 표본은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의 총체로 Q 모집단을 선정하는 방법은 문헌 연구나 면접 방법에 의존한다(김홍규, 1997).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 상담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7명과 일반인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문항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131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관련 선행연구와 전문서적 과 성폭력 기관 잡지 등을 통해 얻은 40개의 진술문을 합해 총 171개의 Q모집

단을 구성하였다.

2. Q 표본의 선정

주제별로 Q 모집단을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서 공통된 의미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진술문끼리 합쳐 분류하였으며 이중 33개의 진술문을 선택하였다. 이 과정이 끝난 후 동료 간호학 교수들과 Q방법론의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아 표현의 명확성 및 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관해 서로 의견교환 후 재조정하여 최종적으로 33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표 1 참고).

〈표 1〉 Q 진술문 (33개)

1. 강간은 살인에 비유하는 악질적 범죄이다
2. 남편이 아내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3. 성폭력은 소수의 비정상인들에 의해 일어난다
4. 성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문제이다
5. 부인이 강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면 남편과 부인의 사이는 나빠지기 마련이다
6. 성폭력 상황에서 여성들은 거부나 저항보다는 쉽게 복종하거나 체념하게 된다
7. 성폭력은 여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도 원하지 않는 성교를 했다면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8. 엄밀히 말하자면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 끝까지 저항하면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남의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성폭력을 당한 여자는 화를 자초한 것이다
10. 남자는 생리적으로 성적 충동을 참기 힘들다 그래서 성폭력도 발생한다
11. 약혼자가 과거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 때문에 파혼하는 것은 졸렬하다
12. 성폭력범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
13. 술집여자가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별로 믿을 것이 못된다
14. 성폭력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모독으로 피해자는 인권을 유린당한 것이다
15. 성폭력은 자신의 우월감을 표시하기 위해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
16. 여자가 몸이 많이 노출되는 옷을 입고 다니면 성폭력을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17.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의 윤리 질서가 무너진 탓이다
18. 강간을 당한 여자는 정조를 잃는 것이다
19. 우리 집 식구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따위의 일은 하지 않겠다. 소문이 나기 때문이다
20.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말은 별로 믿을 것이 못된다

21. 성폭력이란 얻어맞는 폭력과 같은 것이다
22.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정도는 무방하다
23. 성폭력은 가정 교육이 잘못된 탓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다
24. 진정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면 성폭력은 없어질 것이다. 성폭력은 남성중심주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25. 성폭력이란 당하게 되면 훌훌 털고 일어나 당당히 살아가기 힘든 일이다
26. 성폭력은 예방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대부분인 남성에 대한 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7. 여자는 강간당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
28. 성폭력이란 불평등한 지위를 이용해 성을 지배하는 것이다
29. 술에 만취되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가해자의 죄는 가벼워져야 한다
30.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31. 밤늦게 여자가 외출해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32. 성폭력은 의도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다
33. 성희롱도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어야 한다

3. P 표본의 구성

Q방법론은 개인간의 차이를 다루기보다는 개인내의 차이를 다루는 질적 조사연구 이므로 표본의 수에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본 연구의 표본은 Q 방법론 워크샵에 참석한 간호학 교수와 조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포함해 총 20명이었다.

4. Q분류과정 및 방법

Q 분류과정 절차는 Q표본을 먼저 읽은 후 긍정, 부정, 중립으로 크게 구분한 후, 긍정 진술문중에서 가장 긍정하는 것(+4) 을 차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분류해 하였으며, 부정 진술문인 경우도 가장 부정하는 것(-4) 을 바깥에서부터 분류하여 중립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분류가 끝난 후 양극의 찬성과 반대 진술문에 대한 이유를 기록하게 하였다.

5. 자료처리 및 분석

P표본으로 표집된 20명에 대한 자료수집이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코딩은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항목 번호를 확인하면서 가장 반대하는 경우 (-4)를 1점으로 시작하여 2점(-3), 3점(-2), 4점(-1), 5점(0), 6점(+1), 7점(+2), 8점(+3), 으로 가장 찬성하는 경우(+4)에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Quanl PC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Q요인 분석은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성폭력에 대한 태도 유형

성폭력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주관성을 조사한 결과 세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유형은 전체변량의 59.1%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 1유형이 46.4%, 제2유형이 7.0%, 제3유형이 5.8%로 나타났다. 이중 제 1유형이 46.4%의 설명력을 가지므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구조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표 2 참고).

〈표 2〉 유형별 Eigen value와 변량

유형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Eigen values	9.2817	1.3912	1.1545
Variance	.4641	.0696	.0577
Cumulative	.4641	.5336	.5914

각 유형간의 유사성 정도를 나타내는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상관관계는 .450이며 제1유형과 제3유형은 .708, 제2유형과 제3유형은 .441로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표 3〉 유형간의 상관관계

유형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1유형	1.000	.450	.708
제2유형	1.000	.441	
제3유형			1.000

연구 대상자의 구성은 제1유형이 10명, 제2유형이 3명, 제3유형이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표 4 참고) 각각의 유형 내에서 인자 가중치(factor weight)가 가장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인 사람으로 그 유형을 대표한다.

〈표 4〉 P 표본의 유형별 인자 가중치

제1유형(N=10)		제2유형(N=3)		제3유형(N=7)	
1F	.9312	12F	2.0410	2M	.5762
3F	1.0518	14M	1.5370	6M	.3690
4F	2.0997	15F	.7719	10M	2.3773
5F	1.0715			10F	.7317
7F	.6930			17F	1.2256
8F	1.6355			18M	1.5259
9F	1.8330			19M	1.2776
11F	2.4709				
13F	.7368				
20F	.9687				

2. 성폭력에 대한 태도 유형별 분석 및 논의

성폭력에 대한 각 유형별 분석은 33개의 진술문중 가장 찬성 혹은 가장 반대사를 표시한 항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각 유형의 특성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특정 유형의 표준 점수와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 그리고 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인과 Q분류 과정후 기록된 양극의 찬성과 반대 진술문들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이밖에도 여성주의 이론이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의 틀로 이용되었다.

또한 각 유형의 특성을 함축적인 의미로 나타내는 인식유형의 명명은 간호학 지도교수와 함께 논의과정을 거쳐 제1유형은 가해자 책임형, 제 2유형은 피해자 책임형, 제3유형은 사회규범 책임형으로 명명하였다.

1) 제 1 유형(가해자 책임형)

제1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강한 긍정을 표시한 항목은, '강간은 살인에 버금가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으로 피해자는 인권을 유린당한 것이다' '성폭력범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 '성폭력이란 당하게 되면 훌훌 털고 일어나 당당히 살아가기 힘든 일이다' '성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 문제이다' '성폭력은 예방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대부분인 남성에 대한 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로 나타났다, 가장 강한 부정성을 표시한 항목은, '여자는 강간당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 '엄밀히 말하면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 끝까지 저항하면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술에 만취되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가해자의 죄는 가벼워져야 한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정도는 무방하다'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말은 별로 믿을 것이 못된다' '남의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성폭력을 당한 여자는 화를 자초한 것이다'로 나타났다(표 5 참고).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모두가 여성이었고 실제 사례를 접하고 상담했던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로 피해자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담원이거나 성교육 관련 강의를 하는 대상자들이었다. 제1 유형의 특성은, 성폭력의 가해자는 주변의 아는 사람이며 강제적인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므로 피해자가 저항해도 모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책임이 없으며 가해자를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남성들에 대한 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들과 비교적 유사한 반응을 보인 제 3유형과 차이를 보인 것은, 제1 유형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상관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가해자가 술에 취해 성폭력을 저질렀다 해도 선처보다는 더욱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자가 남의 차를 얻어 타고 가다 일을 당했거나, 또는 밤늦게 외출해서 당한 경우, 술집여자라 해도 모두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으므로 극형으로 다스려야 함을 이야기했다. 반면 제 3유형은 성폭력을 성관계로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가정 교육의 필요성을 중시하였으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가해자 중심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제 1유형은 구체적 사례중심으로 특별한 아이디어(대안)를 갖고 있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책임이 없고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한 언어나 몸짓이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이론이 피해자 비난 논리를 지지하게 된다는 (Gilbert, 1977) 생각과 성 불평등을 내재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구조하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하나의 폭력으로 성폭력을 이해하는 시각 (Schwendinger, 1978)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을 대표하는 대상의 진술내용을 보면, 성폭력이란 서로가 애정을 나누는 것이 아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힘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로 성폭력의 개념을 폭넓게 인식하였으며 원인은 성욕구의 자가조절 결여 와 힘있는 자의 약한자에 대한 지배 욕구의 발산, 불안정한 가정과 사회환경 즉 성을 자극하는 주위 환경에 의해 발생하며 대처방안으로서 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를 보급함으로써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성문화에 대해서는 성이 많이 개방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솔직히 자신의 성의식을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성문화는 상업주의자들에 의해 주도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성교육에 의해 왜곡된 성문화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대상자는 40대 후반의 간호학을 강의하는 교수로서 실제 피해 사례를 접했던 경험이 있었다.

2) 제 2 유형(피해자 책임형)

제2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강한 긍정으로 표시

〈표 5〉 제 1유형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보인 진술문

항목번호	진 술 항 목	표준점수(z-score)
1.	강간은 살인에 비급가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1.90
14.	성폭력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으로 피해자는 인권을 유린당한 것이다	1.60
12.	성폭력범은 극형에 처해야한다	1.49
25.	성폭력이란 당하게 되면 훌훌 털고 일어나 당당히 살아가기 힘든 일이다.	1.39
4.	성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문제이다	1.04
26.	성폭력은 예방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대부분인 남성에 대한 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02
9.	남의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성폭력을 당한 여자는 화를 자초한 것이다	-1.05
22.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정도는 무방하다	-1.38
20.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말은 별로 믿을 것이 못된다	-1.39
29.	술에 만취되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가해자의 죄는 가벼워져야 한다	-1.57
8.	엄밀히 말하면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 끝까지 저항하면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7
27.	여자는 강간당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	-1.88

한 항목은, '성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문제이다' '강간은 살인에 버금가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성폭력은 예방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대부분인 남성에 대한 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으로 피해자는 인권을 유린당한 것이다' '성폭력은 소수의 비정상인 들에 의해 일어난다'로 나타났고, 가장 강한 부정으로 표시한 항목은 '성폭력은 의도적인 범죄라기보다 우발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사고이다' '성폭력이란 언어맞는 폭력과 같은 것이다' '성폭력은 자신의 우월감을 표시하기 위해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 '약혼자가 과거 강간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 때문에 파혼하는 것은 졸렬하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정도는 무방하다' '약혼자가 과거 강간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 때문에 파혼하는 것은 졸렬하다' <표 6참고> 로, 제 2유형은 성폭력이 비정상인 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발생하며, 심각하게 성폭력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고 믿고 있지 않은 유형이다. 제1 유형과 제2 유형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제1 유형이 성희롱 문제를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 한편 제2 유형은 성희롱을 성폭력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구나 남편이 아내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폭력이라고 할 수 없고, 남성 피해자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가해자는 소수 비정상인이며 그래서 의도적으로 발생하나, 강간이란 끝까지 저항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남자란 생리적으로 성적 충동을 참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하면 본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한번 강간을 당하면 개인적으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에 나쁜 사람에게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제1 유형이 보다 전문적인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제2 유형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많이 수용하는 보수적이고 의식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신분, 행동거지, 유발요인에 초점을 두는 여성의 언어나 몸짓이 상대 남성의 강간을 유발한다(Amir, 1971)는 것과 억제하기 어려운 성적 충동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통념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며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됨으로서 성폭력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2 유형은 이명선(1988)의 강간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서 강간이란, 강제성을 지니고 남편이 아내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도 포함하며 동성이나 여성에 의한 강간도 가능하다는 여성주의적 시각과는 대치되는 유형이다. 부부간에 강제성이 동원되어도 성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은 우리 나라의 가부장제 결혼은 남성이 여성의 성을 소유한다는 관념에 의해 여성을 성적 자율권을 갖지 못하는 존재로 간주하며 여성의 성적 복종은 결혼의 의무로 요구되고 부부간의 성생활은 본질적으로 지배와 복종의 관계라는 성문화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부부 관계와 기타 남녀간의 성관계에서 평등한 인격체로서의 상호 정신적 육체적 교류를 불가능하게 하는 성문화이다(이영자, 1997). 제2유형을 대표하는 대상자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이란 성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이며, 발생원인은 우

<표 6> 제 2유형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보인 진술문

항목번호	진술항목	표준점수(Z-score)
4.	성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문제이다	1.68
1.	강간은 살인에 버금가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1.61
26.	성폭력은 예방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대부분인 남성에 대한 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51
14.	성폭력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으로 피해자는 인권을 유린당한 것이다	1.45
3.	성폭력은 소수의 비정상인 들에 의해 일어난다	1.13
11.	약혼자가 과거 강간당했다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 때문에 파혼하는 것은 졸렬하다	-1.10
22.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정도는 무방하다	-1.10
15.	성폭력은 자신의 우월감을 표시하기 위해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	-1.64
21.	성폭력이란 언어맞는 폭력과 같은 것이다	-1.80
32.	성폭력은 의도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이다	-2.00

선 피해자의 과도한 노출과 적극적인 대처방법의 미숙이며, 그밖에 우리사회의 상대를 종속관계로 인식하는 남존여비 사상 때문으로 인식하였다. 대처방법으로서는 남녀의 생리적 구조의 차이 즉 남성이 충동적 특성을 가진 존재임을 이해시키며 아울러 남녀의 종속관계에서 수평관계로의 인식의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문화는 성교육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하였다. 이 대상자는 50대의 한의사로 직업상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통해 피해자들의 삶이 황폐화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3) 제 3 유형(사회규범 책임형)

제3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강한 긍정과 강한 부정을 표시한 항목을 검토해보면(표 7참고), 가장 강한 긍정으로 표시한 항목은 '성희롱도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어야 한다'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 문제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으로 피해자는 인권을 유린당한 것이다' '성폭력은 가정교육이 잘못된 탓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다' '약혼자가 과거 강간당한 일이 있음을 알고서 그것 때문에 파혼하는 것은 졸렬하다' '성폭력은 예방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대부분인 남성에 대한 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로, 성폭력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이기보다 우리 사회의 문제로, 성희롱도 성폭력에 포함시켜 범주를 폭 넓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가정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반면 가장 강한 부정으로 표시한 항목은, '엄밀히 말하면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 끝까지 저항하면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이란 언어맞는 폭력과 같은 것이다' '성폭력 상황에서 여성들은 거부나 저항보다는 쉽게 복종하거나 체념하게 된다' '성폭력은 소수의 비정상인들에 의해 일어난다'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말은 별로 믿을 것이 못된다' '여자는 강간당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통념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반해 성폭력 피해상황과 결과에 대한 통념은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제3 유형은 성폭력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넓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해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통념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유형이

다. 즉 성폭력을 성관계로 인식하고, 성폭력 상황에서 여성들은 쉽게 복종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강하게 저항하거나 거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물리적 육체적 폭력 상황에 접하게 되며,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위축되어 가해자의 육체적 강제에 적극적으로 저항 할 수 없게 된다. 즉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한 당혹감이나 심리적 공포 때문에 이미 저항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1996, 이성은; 1998, 이명선). 이는 여성의 성장과정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게 됨으로서 피해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잠정적 피해자로 키워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성폭력 상황에서 거부나 저항을 해보지만 결국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피해상황에서 피해자는 빌면서 애원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힘으로 저항하고, 크게 소리치르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끝까지 저항했으나 어쩔 수 없다는 연구보고(한국여성개발원, 1997)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을 모면할 수 있다는 통념과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대응 전략중 소극적 대처 방법보다는 적극적 저항이 성폭력을 모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고(심영희, 1990)하고 있어, 성폭력은 예방이 최선책임을 감안할 때 호신술과 같은 적극적 저항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제 3유형의 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제3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과 면담한 내용을 기술하면, 성폭력하면 우선 강간을 생각하게 되고 강제적으로 폭력을 사용한 성행위라고 하였고, 원인에 대해서는 욕구불만이 있거나 열등감이 심한 변태 성욕자에 의해 그러나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상실되고 개인 쾌락주의적 성향이 짙은 사회현상으로 인해 더욱 많이 발생하며, 따라서 대처 방안도 도덕과 윤리 교육을 강화 시켜야 하며 특히 성폭력법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다루어야 하고, 그밖에도 성욕구를 건전하게 분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레저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성문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성에 대한 표현이 금기시 되고 자연스럽지 못하며 서구화 되어가고 있는 듯 하면서도 유교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 대상자는 현재 무역학을 전공하는 22세된 남학생으로 2남중 첫째로 주변에서 성폭력 경험 사례를 접한 적이 없었다.

〈표 7〉 제 3유형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보인 진술문

항목번호	진술항목	표준점수 (Z-score)
33.	성희롱도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어야 한다	1.75
4.	성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문제이다	1.74
14.	성폭력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으로 피해자는 인권을 유린당한 것이다	1.73
7.	성폭력은 여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도 원하지 않는 성교를 했다면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1.29
23.	성폭력은 가정교육이 잘못된 탓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다	1.16
11.	약혼자가 과거 강간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 때문에 파혼하는 것은 졸렬하다	1.02
26.	성폭력은 예방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대부분인 남성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17
20.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말은 별로 믿을 것이 못된다	-1.17
3.	성폭력은 소수의 비정상인들에 의해 일어난다	-1.22
6.	성폭력 상황에서 여성들은 거부나 저항보다는 쉽게 복종하거나 체념하게 된다	-1.62
21.	성폭력이란 얻어맞는 폭력과 같은 것이다	-1.75
8.	엄밀히 말하면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 끝까지 저항하면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5

3. 성폭력에 대한 공통 의견

각 유형간의 공통된 의견 가운데 적극찬성을 보인 항목은 〈표 8참고〉, '성폭력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으로 피해자는 인권을 유린당한 것이다' '성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 문제이다' '성폭력은 예방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남성에 대한 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훌훌 털고 일어나 당당히 살아가기 힘든 일이다'로 세유형 모두 성폭력은 인권에 대한 유린 행위이며, 개인차원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해결 방법도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당당히 살아가기 힘든 일로 인식하였다. 이는 최근 성폭력을 성문제이기 보다 인권 문제로 다루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연구에서 가해자에 대한 연구로의 방향전환이 있음을 고려할 때, 문제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한편 세 유형 모두 적극 반대를 보인 항목은,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말은 별로 믿을

것이 못된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정도는 무방하다 로 그 동안 성폭력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내용과 실제 사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보도로 인한 인식의 변화인 것으로 생각된다.

4. 성폭력에 대한 태도의 각 유형간 차이

각 유형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 유형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며 발생원인도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가해자인 남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유형의 표준 점수와 나머지 유형의 평균 점수와의 차이와 개별적 면담을 통해 나타난 세 유형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제 1유형은 성폭력을 인권유린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일반적 폭력을 당한 것일 뿐 성관계로 인식하지 않았고, 발생원인은 불안정한 사회환경과 힘있는 자가 약한자에게 가하는 지배 욕구 때문이기도

〈표 8〉 세 유형의 공통 의견

항목번호	진술항목	표준점수 (Z-score)
14.	성폭력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으로 피해자는 인권을 유린당한 것이다	1.56
4.	성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문제이다	1.50
26.	성폭력은 예방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대부분인 남성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16
25.	성폭력이란 당하게되면 훌훌 털고 일어나 당당히 살아가기 힘든 일이다	1.08
22.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정도는 무방하다	-0.94
20.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말은 별로 믿을 것이 못된다	-1.13

하나 그보다는 개인의 성욕구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제 2유형은 성폭력을 피해자의 인권 문제와는 관계없이 단지 성관계가 일어난 것으로 인식하였고, 원인은 피해자의 과도한 노출이나 대처방법이 미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대처방안도 남녀의 차이에 대해 특히 남성은 충동적 존재임을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 3유형은 성폭력을 인권유린 행위이면서 동시에 성관계로 인식하였고 열등감이 심하거나 변태 성욕자에 의한 욕구불만이 충동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나 보다 근원적인 것은 도덕과 윤리가 상실된 개인 쾌락주의적 성향의 사회가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대처방안으로는 도덕과 윤리 교육의 강화와 성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레저시설과 문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부부공간이나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는 제 2유형만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1, 3 유형은 성폭력의 범주로 인식하는 진보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 1유형은 가해자 책임형, 제 2유형은 피해자 책임형, 제 3유형은 사회규범 책임형으로 명명하였다(표 9 참조).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주관성의 요인을 발견하고, 발견된 요인들의 특성을 기술함으로써 성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의 문제점을 이해하며, 나아가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각 개인의 경험이나 지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개념을 객관화하기에 유용한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가해자 책임형, 피해자 책임형, 사회규범 책임형의 세 유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세 유형 모두 성폭력 문제는 성문제이기 보다는 인권문제이고, 발생원인도 개인문제이기 보다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가해자에 대한 성교육을 강조하는 공통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독특한 성문화가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며, 해결방법도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뒷바침이 요구됨을 암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상 여성의 대부분이 피해상황에서의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는 제 1유형은 모두가 여성으로, 일부 사회가 책임져야할 부분들이 있으나 가해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한 처벌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피해자 중심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탈피한 진보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유형은 성폭력 전반에 관한 많은 통념을 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그 원인이 피해자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므로 따라서 이들에게는 우리 나라의 이중적 성문화와 이로 인한 통념과 남녀간의 잘못된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이 요구된다. 제3유형은 사회규범 책임형으로 성폭력의 의미,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차원에서 사회문제로 폭넓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해상황이나 피해결과에 대한 통념은 그대로 수용하는 형으로, 이들에게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교육함이 필요하며 특히 피해 상담기관이

〈표 9〉 유형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

성폭력에 대한 태도	제 1 유형 가해자 책임형	제 2 유형 피해자 책임형	제 3 유형 사회규범 책임형
통념 수용도	인권문제로 인식	성관계로 인식	인권문제와 동시에 성관계로 인식
원 인	가해자 잘못; 성욕구 조절 결여 지배욕구	피해자 잘못; 과도한 노출, 대처방법의 미숙	사회윤리 도덕 붕괴, 가정교육 잘못
대처 방안	가해자 성교육, 처벌	피해자 성교육	도덕 윤리교육 강화 처벌 레저, 문화 시설 필요
공간인지도(성희롱, 부부 공간)	인 정	인정하지 않음	인 정

나 관련단체에 참여함으로써 피해자와 여성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가 간호에 주는 의의는, 우리 사회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개인의 주관성에 따라 파악하여 성폭력에 대한 포괄적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며, 간호교육과 실무 측면에서 개별적 주관성을 고려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방향제시와 아울러 간호중재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제 언

위와 같은 결과와 논의에서 나타난 문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 1) 본 연구결과 동질의 연구 대상자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하나의 유형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유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이, 성별, 종교, 직업, 피해 경험을 고려한 재연구가 필요하다.
- 2) 일반인과 피해자 및 가해자들을 함께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히고 피해자와 가해자 측면을 고려한 정책제안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3) 피해자 중심의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 사례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광일, 남정현(1990). 강간에 대한 태도조사. 정신건강 연구, 9, 164-173.
- 김명자 (1985). 민속에 있어서 성의 의미. 정신건강 연구, 3, 24-46.
- 김선영 (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주 (1997). 성폭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조사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진명 (1993). 콜레속의 한국여성. 서울: 집문당.
- 김홍규 (1992). 주관성 연구를 위한 Q방법론의 이해. 간호학 논문집, 6(1), 22-32.
- 김홍규 (1997). Q방법론의 이론과 간호학 연구의 적용. 서울: 한양대학교 간호발전 연구소.
- 남순열(1998). 성폭력의 개념분석. 한양대학교 간호발전 연구소지, 3(1), 11-21.
- 남정현 (1990). 한국에서의 강간 현황. 정신건강 연구, 9, 14-25.
- 노주희 (1997). 성폭력법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순주 (1995).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숙 (1995). 간호학에서의 여성주의적 접근. 간호학 탐구, 4(1), 129-142.
- 박현이 (1996). 비행청소년의 여성관과 성폭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성자 (1993).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의 유형, 부정적 영향 그리고 피해여성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연구, 5.
- 신혜숙 (1996). 성희롱에 대한 여성의 태도 유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2), 147-163.
- 심영희 (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 심영희 (1993). 성적 피해 방지를 위한 성교육. 인간발달 교수 연구회 세미나 자료집, 1-28.
- 심영희 (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서울: 나남.
- 안애선 (1997). 성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선 (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미경 (1997).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아동의 성학대 위험지각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은 (1996). 직장내 성희롱의 순응과 저항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원숙 (1996). 근친 성학대 가족의 역동성과 사회복지적 개입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과학 논총, 창간호, 185-239.
- 장필화 등 (1994).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의 모색. 여성학 논집, 11, 113-145.
- 한국 성폭력 상담소 (1992). 일그러진성문화 새로보는 성. 서울: 동아일보사.
- 한국여성 개발원 (1997). 성폭력 상담의 실제.
- 한국여성 연구회 (1993). 여성학 강의. 서울: 집문당.
- 현혜순 (1997).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aron, L., & Straus, M. A. (1987). Four theories of rape: A methodological analysis.

Social Problems, 34(5), 467- 489.

Burt, Martha (1980). Justifying personal violence: A comparison of rapists and the general public. Victimology, 8, 131-150.

Finkelhor, D. & Baron, L. (1986). Risk factors for childhoo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evid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43-71.

Finkelhor, D., Hotaling G., I. A. & Smith, C. (1990). Sexual abuse in a national survey of adult men and women: Prevalence,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Child Abuse and Neglect, 14, 18-28.

Gilbert, G. (1997). Forcible rape: An introduction. In D. Chappell(eds.), Forcible rape: The crime, the victim and the offender(pp.1-3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Kim, H. Susie (1983). The nature of theoretical thinking in nursing. Norwalk, Conn.: Appleton-Century-Crofts.

Koss, Mary D., Kenneth E. Leonard, Dana A. Beezely and Cheryl J. Oros (1985). A nonstranger sexual aggression: A discriminant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undetected offenders. Sexual Role, 12, 981-992.

Menachem, A. (1971). Patterns in forcible ra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oda Chen (1992). Risk factors of sexual abuse among college students in Taiwan.

Russell, Diana E. H. (1975). The Politics of rape. New York: Stein and Day.

Sanday, Peggy R. (1981).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rape: A cross cultural study. Journal of Social Issues, 37(4),5-27.

Schwendinger, J. R., and Schwendinger, H.

(1978). Studding rape: Integrating research and social change. In C. Smart & B. Smart(eds.), Women, sexuality and social control(pp.106-118).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Scully, Diana (1990).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A study of convicted rapists. Boston: Unwin Hyman Ltd.

- Abstract -

Key concept: Sexual Violence, Attitude

A Study on the Type of Attitude toward the Sexual Violence

*Nam, Soon Yeul**

*Eun Kwang Yoo, RN, Ph.D***

*Park, Kyung 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ype of attitude toward the sexual violence and to analyse the structure of subjectivity about the sexual violence.

Q- methodological method was used .

The Q concourse for this study was formed through literature review, open question and in-depth interview, 171 Q statements were obtained and finally 33 statements were selected.

The subjects for Q classifications were 20 persons .

The Quanl PC program was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first type, blaming offenders consisted of 10 subjects has the recognition that victims must not be blamed ; offenders are responsible for any circumstances; and sexual violence is an

* Lecturer, Dep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t. of Nursing, Professor

*** Professor, Dongnam Health Colleg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The second type, blaming victims consisted of 3 subjects has the recognition that victims carelessness is causal factor of sexual violence. They recognized the sexual violence as an identical concept with sexual intercourse.

The third type, blaming social moral consisted of 7 subjects has the recognition that the collapse of social ethics and moral gives rise to sexual violence. They recognized the sexual

violence as both sexual intercourse and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n conclusion, the result leads to understand the type of attitude toward sexual violence in Korean sociocultural reality.

Consequently, the results will be conducive to provide guidelines for nursing intervention and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ng sexual violence.